

일주문



웅주사신도회활성화세미나
웅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2월 20일 웅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제2교구 신도회 조직화를 통한 불교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린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헤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2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상도선원장 금강경 강좌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4일-5월 30일 마음수행 코칭과 불교입문 강의, 3월 31일-5월 26일 금강경 강좌를 실시한다. (02)815-3391



東大 간호사 시험 지원합격 쾌거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월 22일 시행된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51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촌한옥마을 생태체험
김재일 생활생태연구소 소장은 2월 20일 서울 북촌한옥마을에서 한옥을 비롯한 전통마을의 환경을 살리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우와함께 사회적기업 1호 선정
이재희 연우와함께 대표이사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1호로 연우와함께가 선정돼 2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증서를 받았다.



대불련 2010 템플스테이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3월 26-28일 충주 석종사에서 10학년 새내기들과 함께 하는 'KBUF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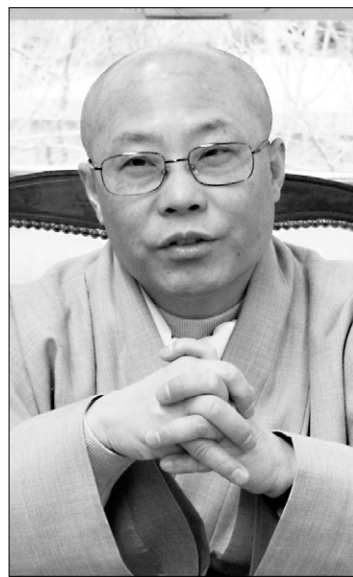
파리미타 우수지도자 표창
김재기 파리미타 전남지부 사무국장은 2월 6일-7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파리미타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사 종단협 사무국장 강하 스님 임명
범어사 강하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이하 종단협)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하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강하 스님은 양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1995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자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 ‘나눔은 수행’ 이웃돕기 전개

인권위 활동 10년 끝마친 법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10년간 국가인권위 활동을 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불교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데 더욱 나서야 합니다.”

2월 8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에서 퇴임한 법안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서울 금선사 주지)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2000년 4월 7일부터 10년 동안 국방부 감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몸담아 왔다.

스님은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친인척 종교인 불교에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로, 비구니 스님의 처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종법 등에 명시된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재고해야 합니다.”

법안 스님은 인권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꼽았다.

실은 더욱 비극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인권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 기록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소수자와 약자를 종교계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불교세가 약한 것을 아쉬워하며 포교 활성화를 촉구했다.

스님은 “각부처 고위직에서 불자를 찾아볼 수 없다. 마치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자라면 수행뿐만 아니라 바깥세상을 향한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인권위 활동을 회상하는 의미로 그동안 받은 회의비 2000만 원을 2월 10일 종단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스님이 전달한 기금은 종단 연구소 설립과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스님이 이어 동국대 보광 스님이(조계종 총회의원·청계산 정토사 주지)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임됐다.

박선주 기자 200211@buddhapia.com

진각종은 올해 ‘나눔은 수행이다’는 주제로 이웃돕기 행사를 적극 전개한다.

진각종은 2월 9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종인원 내 무진설법전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병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종무원들 스스로가 꾸준히 모금에 동참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발대식에 이어 10일 오전 9시부터 종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하루 동안 세터민 등 서울 성북구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찾아 자비의 쌀 20kg 100포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은 2010년 ‘나눔은 수행이다’를 주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나선다.

이제 대중 위해 회향하길

태고종, 법륜승가대 졸업식 봉행

태고종 종립대학 법륜승가대 졸업식이 2월 9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태고교 첫 졸업생 54명과 사교과 2기를 수료한 30명 등 84명의 스님들이 졸업했다.

법륜승가대학장 보경 스님은 “겨울 혹한 뒤 새 봄이 만물을 키우듯 갖은 어려움도 향학열을 막지 못했다”며 “그동안 배운 바대로 부처님의 진리를 힘들고 소외된 대중을 위해 회향해 달라”고 축사했다.

중앙사정원장 윤국 스님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신심 하나로 이력종장(履歷宗匠)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강원이 설립된 것은 법난 이후 약화된 전통법맥을 이어달라는 뜻으로 태고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종단



이날 졸업식에서는 정통법맥의 자긍심을 가진 84명의 태고종 스님들이 졸업했다.

노덕현 기자

“보은의 마음으로 회장직 임할 것”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불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컸습니다. 부처님 가피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중앙신도회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천태종은 2월 7일 서울 관문사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맹형규 청와대 정부특보, 김무송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신도회장이 취임식을 봉행했다.

김학송 신임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중앙신도회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도회와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신도회장은 이날 취임에 앞서



서 공부한 것이 인연이 돼 불자가 됐다”며 “그 이후 둘째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는 천태종 2대 종장 대종 스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낫는 기쁨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연은 김 신도회장이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며 국정활동에 임하는 원동력이 됐다.

김 신도회장은 “진해 해상사가 화재로 소실된 후 신도회장을 맡아 복원불사에 나섰다. 국회의원 출마에 선거운

동을 하면서도 신도회장 직을 감추지 않았다”며 “진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150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진해시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불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신도회장은 “중앙신도회장에 임함에 있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종단이 표방하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신도회장은 “2011년 천태종조상왕 원각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종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도회장은 천태종 군중종교 파송 및 10·27법안 폐하장 명예회복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교계 권익향상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불기협 신임 회장에 조용수 btn 기자 선출

한국불교기독교협회(이하 불기협)는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조용수 불교TV 보도국 차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용수 신임회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대불교신문사 기자를 거쳐 불교TV 보도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을 전공 중이다. 또 불기협은 신임 감사에 김주원 주진불교 편집국 부장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선학원이 발행하는 <월간 선원>의 신규 회사 가입 승인 및 6400여 민원의 2009년 회계감사 승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통과됐다. 조종섭 기자

**각성 큰스님 “신심명(信心銘)” 고운사 특강**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충남교구 총무원**

귀의 삼보하옵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종단을 애중하고 존경하는 중도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법체청안 하시옵고 하시는 모든 불사 원만성취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총남 총무원장	상 원	총남 총회회장	보 월
중앙 총회 의원	지 우	총무국장	도 우
재무국장	금 진	교무국장	천 도

호원 진 허 덕진 성진 연수 법승 명성화  
도원 일월 지혜 성운 도연 도심 도천

◆ 임종안내 (충청 남북도 지역) ◆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뜻을 함께하실 중도님을 모십니다.  
아울러 분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중도님께서도 종무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서류: 교구 총무원 및 총무원 비치

■ 총남교구 총무원: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20-18번지  
■ 해 천 사: 전화 041)863-5582 팩스 865-6655  
■ 총 무 원: 서울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8-8161~2 팩스 998-8384

신심명을 통해 眞如 自性 을 바로 보게하는 중국 선종 3조 승찬 조사의 명쾌한 안목인 신심명을 고운사에서 각성 큰스님의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 시: 2010년 3월 8일(월) ~ 12일(금) 오후 2시  
장 소: 고운사 선체험관  
참가대중: 4부대중 누구나...  
문 의: 종무소 054)833-2324